함평나비축제 생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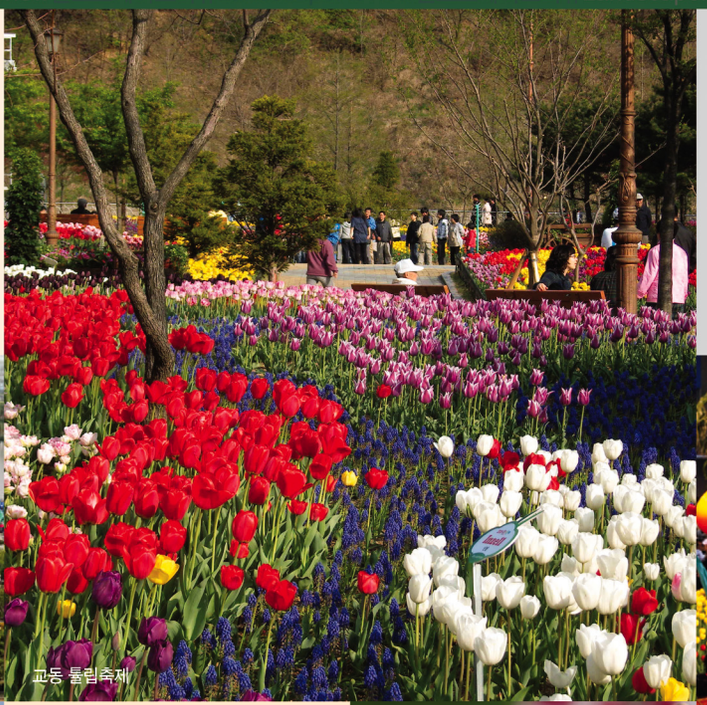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부지전경

Landscape Review

조경정보 vol. 07

안면도 세계꽃박람회

고양세계꽃박람회



교동 튤립축제

고양 꽃박람회

의왕 화훼박람회

강릉 교동튤립축제

Contents

도시정원박람회

02 꽃과 축제, 정원박람회의 과제
04 꽃과 나무,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
06 정원박람회의기원과 유형
07 Issues & News

꽃과 축제, 정원박람회(Garden Expo)의 과제

유 병 림 Yoo, Byung Rim ·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2013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국제 정원박람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새로운 축제형식으로 정원전시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박람회는 과거에는 꽃의 만국박람회라고 했으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정원축제' 혹은 '실험정원축제' 라고 해서 그 주제가 꽃 중심의 전시에서 정원의 축제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양 꽃박람회, 안면도 꽃박람회, 서산 백합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등 주로 화훼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시기간이 짧고 연간 지속적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며, 경험 자체도 다소 소극적인 관람위주여서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정원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실험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원이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는 주택과 관련해서 주변 공간을 꾸미는 주택정원 혹은 민가정원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국내 정원문화는 주로 사대부 혹은 사회 지배권력 계층에서 의미가 있었던 원림이라는 대상을 지칭해오고 있고, 따라서 원림 문화 속에서 정원이라는 개념과 실체가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하여 현대 한국사회는 과밀한 인구에 의한 대량 소비가 일어나는 여가문화로 변하고 있고, 여가생활에서 한 개인과 정원문화가 직접 부딪치고, 체험을 통해 공간적, 예술적, 나아가서 정원의 문화적 의미가 소통되어야 하는 이른바 "의사소통"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 쇼몽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원전시나 캐나다 몬트리올과 메티스에서의 정원축제에서는 정원이 담아야 하는 내용과 형식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적인 주제와 실험적 형태를 통해 인간 본래의 존재와 정원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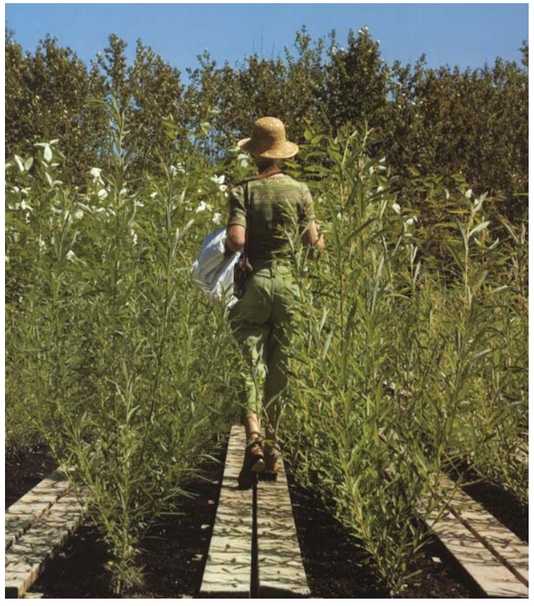
정원박람회가 국내 전시 또는 국제 전시인가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 나아가서 운영방식이 달라진다. 단순히 외국인의 방문자가 많고 적다는 기준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요즈음은 국제적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국내 축제나 전시회에도 외국인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국제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문화나 가치관이 외국 여러 나라에서 인식되고 있는 수준과 걸맞게 의사소통 내지 교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우리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는 현대 국제 사회 속에서의 정원문화를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말이 쉽지, 이것은 매우 어렵다. 실험적 과정과 시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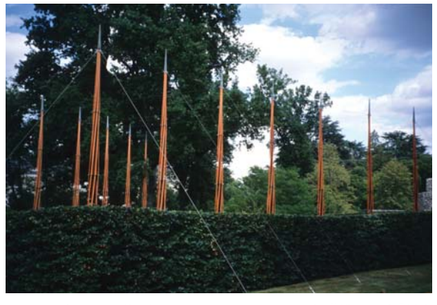
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몇가지 중요한 항목으로는 1)메타포로서 현대성(contemporaries) 2)전통정원의 복구와 새로운 이념의 표상 3)갇힌 형태와 열린 장소성의 창출 4)축제의 지속성 구현 등이다.

축제장은 행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간은 인근 주민들만 이용할 뿐, 연중 황량하고 비어있는 것이 보통이다. 조성된 정원과 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활기를 잃어간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명확해야하고,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연중 공간활용 방안이 조성초기부터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원은 좁은 내부에서 무한한 외부세계를 표현하는 공간과 장소이다. 외부의 경관을 끌어들이는 태도와 내부 자체의 공간적 의미를 설정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설계자의 깊은 성찰과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예가 필요한 만큼, 폭넓은 작가의 참여와 새로운 실험정신이 축제정원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축제정원에서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대목은 우리 정원문화의 현대적 의미를 어떻게하면 세계와 교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소 전문적인 시각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없이 소수의 작가나 지자체 내부적인 입장의 반영으로만 정원이 조성된다면, 어차피 그 질적 수준은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 진행중인 각종 전시축제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정원과 조경양식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것이 작가는 물론이고 대중의 호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통정원의 현대화라는 명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에는 왕도가 없다. 지속적인 실험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정원 축제는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삶의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문화행사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정원축제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yoobl@plaza.snu.ac.kr





꽃과 나무,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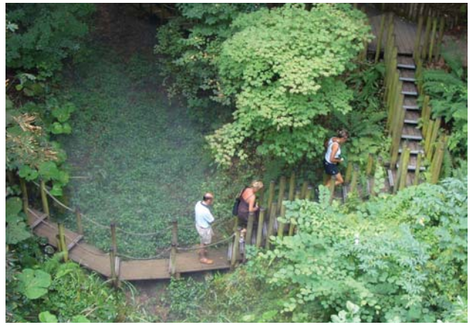
정원박람회에서는 자연과 함께 즐기는 대부분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원은 문화적 자연으로서 우리의 五感을 동원한 종합적인 체험의 영역이다.
모네의 그림과 같은 풍경적인 정원을 감상하기도 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모험을 간접 체험하는 상상력을 가지며, 자연의 멋이 전달하는 예술의 단편을 구경하기도 한다. 또한 이곳에서는 식물이 자라는 생명의 모습에 대한 학습과 함께 기술문명과 결합한 자연의 미래와 우리의 환경을 엿볼 수 있다.
정원박람회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곧 우리의 생활이며, 예술이며 환경에 대한 인간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정원박람회의 공간이 도시 이건 자연이건 그곳에서 꽃과 문화를 즐기는 희망과 유토피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제 _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
기간 _ 2013. 4. 20 ~ 10. 20(6개월간)
전략목표 _ ·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완충지역인 대상지에 생태적인 정원박람회장을 조성하여 순천만으로의 도시 팽창을 근원적으로 차단
· 천혜의 순천만 자연생태계를 도시와 어우러지도록 보전
· 순천만 자연정원과 박람회 개최를 통해 조성될 생태정원의 조화를 시도해 도시를 재생하는 녹색성장형 지역개발 모델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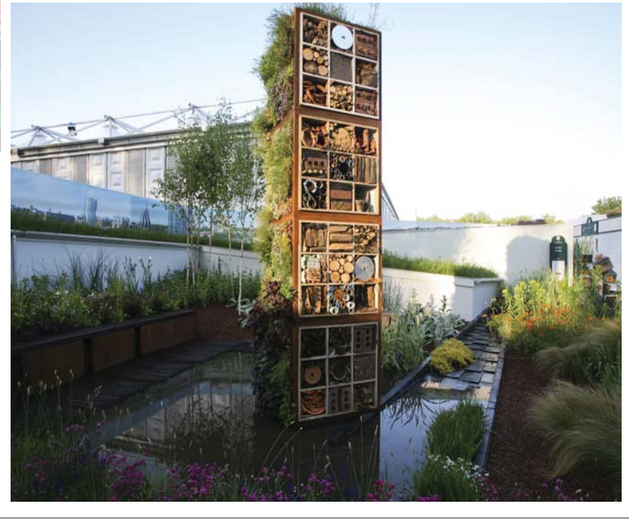
쇼몽 정원 박람회

프랑스 정원축제의 대표적인 행사로 지칭되는 쇼몽 정원 박람회(Festival des jardins de Chaumont-sur-Loire)는 1992년에 시작되었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루아르 강변에 위치한 쇼몽성(chateau du Chaumont)을 중심으로 전체 공간의 구성이 이루어지며, 전시를 위주로 한 주제 공간 및 정원교육과 관련된 부속기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매년 특정한 주제에 의하여 30여개의 작품이 선정되어 전시되는데, 정원의 조성은 그 전해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약 200㎡ 규모의 종 모양의 대지에 각각의 개별 정원이 집중되어 조성된다.



첼시 플라워 쇼

첼시 플라워 쇼는 왕립원예협회(Royal Horticultural Society)에서 주관하는 180년 역사를 가진 영국의 자랑이다. 정원과 원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시하는 행사로서 내용적으로는 모델정원, 식물과 화훼전시, 꽃꽂이 전시, 마켓플레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정원의 경우 5가지의 범주로 세분화되어있는데 영국 중산층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쇼 가든(Show Garden), 전원주택의 정원을 보여주는 코트야드 가든(Courtyard Garden), 현대도시의 삶을 보여주는 시티가든(City Garden)과 실험적 성향의 시크가든(Chic Garden) 그리고 가로경관의 영역에 해당하는 선 플라워 스트리트 가든(Sunflower Street Garden) 등으로 구분되어 전시된다.



정원박람회의 기원과 유형

윤 상 준 Yoon Sang Jun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장

정원박람회의 기원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우수한 꽃에 대한 경연대회를 하는 화훼 축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세기에 들어서 다수의 원예협회가 여러 지역에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원예식물로 그 대상을 넓혀갔다. 왕립원예협회가 1804년 설립된 이후 협회 주관으로 1827년 치스윅 페트라는 원예 축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열렸다. 1851년 영국의 만국박람회 이후에는 원예와 정원이 박람회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번성하였다. 이러한 번성의 시간과 함께 각국의 정원박람회의 성격과 형태는 각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유의 정원 행사로 발전하였다.

영국에서는 치스윅 페트가 장소와 행사명이 바뀌면서 발전하여 '첼시 플라워 쇼(Chelsea Flower Show)' 라는 영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첼시 플라워 쇼는 초창기 3일간에서 현재 5일간 열리는 단기간 행사로서 평상시에는 공원인 곳에 가설공간을 만들어 행사가 열린다. 정원 경연대회가 가장 중심으로, 이뿐만 아니라 원예가 파생되어 형성하는 모든 분야가 총 망라된다. 첼시 플라워 쇼는 매년 행사 때마다 새롭게 준비되고 다시 철거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관련 산업과 관광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일하게 주최측에서 주제를 정하여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 문화 · 정치 · 예술적 이슈가 담긴 디자인 속의 공통분모가 바로 경향이 되며, 시장에 의한 연속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독일의 많은 도시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연방정원박람회(BUGA)나 10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IGA)를 통해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되고 있다. 네덜란드에도 독일의 국제정원박람회와 유사한 '플로리에이드Floriade' 가 10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통상 최소 5년 이상 준비 기간을 가지며,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공원이 도시 내에, 혹은 주변에 새롭게 생기거나 정비되는 개념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정원박람회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행사가 한 장소에서 매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도시에서 개최되고, 행사장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 그대로 공원으로 남아 도시의 기반 시설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인하여 6개월 여간 열리는 박람회는 부수적인 행사 혹은 공원의 개장을 알리는 신호탄쯤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다.

박람회장 조성에 대한 성격을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전후에는 주로 전쟁으로 파괴된 공원 및 역사정원 복원, 1960~70년대에는 기존 공원 정비 및 확장, 1980년대는 새로운 공원 조성, 1990년대는 산업지역이나 군부대지역의 이전에 따른 공원화, 2000년대에는 녹지축의 연결개념, 그리고 최근에는 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닌 도시 내에 분산하여 여러 장소에 녹지를 조성하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전반적인 그린 인프라 구축으로 그 개념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는 '쇼몽 국제 정원 페스티벌(Le Festival International des Jardins de Chaumont-sur-Loire)' 이라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다. 1992년 벨기에 출신의 조경가 자크에 의해 시작된 행사로서 모든 디자이너에게 생울타리로 구획된 종모양의 대지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쇼몽 페스티벌은 순수하게 정원디자인과 예술로서의 정원에 중점을 둔 행사로, 그동안 현대 정원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해나간 실험적인 디자인과 독창적이며 신선한 재료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유럽에는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정원 행사가 있다. 각각의 전시회는 나라와 지방마다의 고유성과 장점을 가지며 발전하면서 복합적인 문화산업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독일과 같은 형태의 정원박람회는 1948년 국제원예생산사협회(AIPH) 설립이후, 박람회 국제 사무국(BIE)과 함께 정원박람회를 인증해줌으로써 많은 나라에서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alpinet0504@hotmail.com

201005 Landscape Review

Issues & news

조경문화·녹색문화 라펜트 www.lafent.com

2009 생생도시 발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한 「2009 생생도시」 평가 결과, 종합부문에 전남 순천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생생도시(ECO-RICH)는 Energy(에너지), Commuting(녹색교통), Oasis(물순환), Recycle(자원재활용), Industry(녹색산업), Corridor(생태축), Humanism(녹색시민운동) 등 7개 분야를 고려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모델로 20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전남 순천시는 생태습지로 유명한 순천만을 정비하고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과, 세계 최고의 고강도 마그네슘 자전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순천만 보전활동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모델로 가장 적합한 지자체로 평가되었다.

종합부문 우수 지자체 중 경남 창원시와 광주 서구, 경남 남해군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 광주 남구, 강원 횡성군은 "녹색성장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 제1회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2010년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공원을 통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는 기치 아래 전문가가 공공의 시각을 배려해서 만든 공공디자인이 아닌, 공원이라는 공간에서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진정한 공공디자인을 시행하고자 오는 10월 8일부터 3일간 시흥 옥구공원에서 제1회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는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공원에 조성해 전시회를 치르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대로 남겨두어 특별한 정원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2010 한국고양꽃전시회 개최

2010년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17일동안 올해로 15회를 맞은 '한국고양꽃전시회' 가 일산호수공원 내 고양꽃전시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1991년 시작된 이 전시회는 20여 년간 이어져오면서 국내 최대의 꽃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전시관은 실내와 야외 테마전시관으로 나누어 제1전시관에서는 우리 꽃과 세계 각국의 희귀 꽃을 만날 수 있으며, 국내 70개 업체와 해외 12개국 24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제2전시관은 테마에 따라 모던가든 · 산수 조경 · 꽃의 대향연 · 정글가든 · 미디어가든 · 에코가든 등으로 나뉜다. 이곳에서는 희귀 선인장과 호접란 · 덴파레 등 난 꽃을 선보인다.

마지막 제3전시관은 꽃 누르미로 불리는 압화작품과 다양한 화훼작품, 나비와 희귀곤충 등을 관찰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야외 전시장에는 갖가지 꽃과 정원이 어우러져 봄꽃의 향연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광주봄꽃박람회 개최

'2010광주봄꽃박람회' 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관해 '꽃과 예술의 하모니, 그리고 여유' 라는 주제로 15개 테마정원과 100여개 홍보부스가 설치되었고, 각종 체험행사와 무대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실내 전시장은 화훼생활관, 화훼예술관, 화훼산업관으로 구분해 전시되었으며, 특히, 지역 유망작가들이 꽃을 주제로 회화, 조각,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출품한 '플로럴 아트페어' 와 일본 고베비엔날레 작가 초대전을 동시에 개최해 예술과 융합된 화훼전시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2010년 7월 1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8호의 주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펜트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기간 2010년 6월 5일까지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www.lafent.com

HOT Issues & News

창조적인 공원과 정원만들기 국제심포지엄

창조적인 공원과 정원만들기 국제 심포지엄이 '도시, 정원을 꿈꾸다' 라는 타이틀로 3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2010년 10월,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초 행사로 경기도와 시흥시의 업무협약식(MOU)이 개최되었다.

안양호 이사장(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행정1부지사)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정원문화를 창출하고, 조성 · 관리 · 운영하여 정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설 것" 이라며, "2010 경기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녹색시민문화가 함께 하는 생명이 있는 도시를 디자인하겠다" 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다짐했다. 조세환 회장(사)한국조경학회)은 "이번 심포지엄이 2010 경기정원박람회의 성격과 방향, 디자인, 실천전략, 마케팅 등 다양한 주제가 종합적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 되어야 한다" 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행사 후 정원박람회 장소가 시흥시의 대규모 시민공원으로 제공될 때, 공원관리의 준비 책이 있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기조강연에는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는 현대 조경의 흐름과 변화하는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도시재생과 창조적인 공원만들기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와 전략을 소개했고, 기조발표에 이어 영국, 미국, 일본, 한국 각국 발표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번째 발표자로 마이클 로완(Director of Mile End Park)은 "영국 공원과 정원의 사회적인 의미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주민 참여를 통한 좋은 공원과 장소만들기의 원칙과 실제" 를 주제로 신시아 니키틴 부회장(Vice President, Project for Public Space)이, "꽃과 정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에 대해 쿠로키 마사타카(미야자키시 도시정비부 공원녹지과 담당)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영선 대표(주)조경설계 서안)의 "우리 조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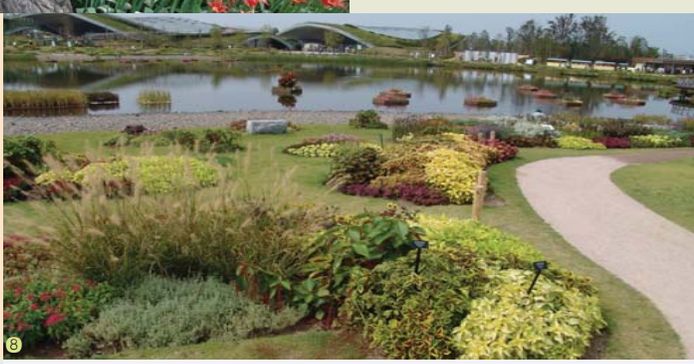
이달의 인기 검색 키워드

- 지산형, 13개 업체에 품질인증서 발급
- 빗물관리시설 만들면 최고 천만원 지원
- 제7회 조경비평상 '우주시대의 조경' 당선
- 빗물, 조경용수 활용 본격화
- 거꾸로 가는 도시공원법
- 조경학회 차기 회장에 양홍모 교수 선출
- 경기도, 6대 공원 새로 짓는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방향 잡나
- 상하이 저탄소 도시 정상회담 개최
- 경기정원박람회 준비위원회 출항
- 여성조경인간담회 개최
- 조경사회 부산지회, 청람기념동산 조성
- 조경인아구단 창단식 기져

조경전문 포털사이트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조세환
편집위원장 | 이상석
편집위원 | 권진욱
강호철 박문호 이형숙 조동범 주신하
김도경 김태경 이유직 조경진 진양교 최신현
간사 | 임해숙 백정희
2010년 5월 1일 발행 | 발행처 _ (사)한국조경학회

1. Chelsea Flower Show, London, U.K
2. Garden Show, Bingen am Rhein, Germany
3. Chaumont, Paris, France
4. Lausanne, Swiss
5. Shizuoka, Japan
6. Kunming EXPO, China
7. Shenyang EXPO, China
8. Fukuoka EXPO, Japan
9. Neu-Ulm, Germany



조경설계 서안(주)
디자인 · 컨설팅그룹
STL SEOAHN TOTAL LANDSCAPE
DESIGN · CONSULTING GROUP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4-9
은광빌딩 2층
Tel. 02-579-7008
Fax. 02-576-7009
E-mail. satla@chol.com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 _ kila96@chol.com